

문화광장



김연주 문화공간 양 기획자

오늘부터 화가는 죽었다

인간의 눈과 귀는 두 개이고 입은 하나인 이유는 보고 듣는 일은 많이 할수록 좋고 말은 적게 할수록 좋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삶의 지혜가 아닌 기능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눈이 두 개인 이유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양보다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과 관련된 것이다. 두 개의 눈 때문에 원근을 파악할 수 있다. 인간과 달리 눈(렌즈)이 하나인 카메라는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카메라의 눈이 인간의 눈과 다른 점 중에는 빛에 반응하는 정

도도 있다. 카메라 렌즈는 빛이 사물 표면에 반사돼 생기는 반짝임을 인간의 눈보다 훨씬 더 반짝이게 본다. 사진처럼 보이도록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포토리얼리즘 작가들이 이처럼 반짝임에 민감한 카메라의 특성을 잘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카메라는 포토리얼리즘 외에도 미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작품에는 카메라의 특징이 반영됐다. 그러나 포토리얼리즘처럼 드러내 놓고 사진을 활용했다는 것을 밝힐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20세기 초까지도 사진은 창의성이 없기에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카메라가 화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카메라에 화가들은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 루이 자크 망데 다게르가 사진을 발표하던 날 화가였던 폴 들라로슈는 “오늘부터 회화는 죽었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그의 걱정과 달리 화가가 매체에 압도당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인공지능이나 포토리얼리즘 화가들처럼 오히려 매체를 자신의 표현 도구로 만들어 사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매체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화가들은 카메라를 넘어 컴퓨터, 홀로그램, VR 등 다양한 매체를 마주할 때마다 오히려 이러한 매체를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했다. 그런데 최근 화가들은 동굴벽화 이래로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가장 위협받고 있는 듯하다.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인 달리2(DALL-E 2) 때문이다. 달리2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글을 입력하지만 하면

된다. 달리2는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고독한 한 사람의 뒷모습을 인상주의 화풍’으로 그려달라는 글을 입력하면 멋진 그림을 그려준다. 따라서 누구나 달리2를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달리2가 그림을 그리는 수준이 화가와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이 예술가라고 믿었던 몇몇 예술가의 말을 달리2가 실현해준 셈이다. 모든 사람이 화가라는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화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오늘부터 화가는 죽었다.” 화가들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구경만 할 일은 아니다. 예술의 모든 개념을 뒤엎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2가 던지는 난제를 풀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사설

제주특별법 개정 타 시·도와 연대하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도내 정치권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행정의 외형은 커졌지만 주민 자치권과 만족도는 약화됐다. 이번 와중에 기초자치단체 부활 입법들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한 채 특별자치법과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통과 시 강원도는 시·군 통합 없이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수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도 강원특별법 행정체제 내용을 법안에 준용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는 현행 2군·8구 행정체제를 2군·9구 체제로 바꾼다. 이에 반해 제주특별법은 시·군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체제 변경 등에 필요한 주민투표를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다. 하지만 정부의 신중 의견으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입장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새로 출범하는 특별자치도들이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한 채 특별자치법과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통과 시 강원도는 시·군 통합 없이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수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도 강원특별법 행정체제 내용을 법안에 준용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는 현행 2군·8구 행정체제를 2군·9구 체제로 바꾼다. 이에 반해 제주특별법은 시·군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제2공항 도민 경청회 개최한다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 도민경청회를 개최한다. 오는 29일 성산국민체육센터를 시작으로, 4월 6일 서귀포시 청어업인회관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용역진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와 사전 협의나 공유조차 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발표하면서 비판과 우려 속에 마련하는 자리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이번 도민경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사업 검토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의 결과에 따른 입장문’을 통

해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을 때에 경청회 이후 어떤 방향 및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청(傾聽)’은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는 내용은 물론이며,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피드백해 주는 것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 제2공항은 2015년 입지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끊임없는 논란 속에 도민 간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쪼록 이번 경청회를 토대로 도민들의 의견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게 제주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하는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

열린마당

구급대원의 안전도 지켜주세요



김수영 제주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추세다. 소방청 통계(전국)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248건이다. 구급대원을 때리는 이들 대부분은 주취자다. 새벽에 인사불성인 상태로 몸싸움을 거는 주취자를 잡으려고 타이르는 것도 소방관의 일이 되고 있다.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급대원 폭행이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이런 행위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식이 없다면 폭행 피해는 계속해서 늘 것이다. 구급대원은 신이 아니다. 당신과 같은 누군가의 가족이다. 격려 한마디에 힘이 솟는다. 고맙다는 말에 큰 보람을 느낀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를 어루만져주는 도민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119구급대원이다. 소방관이 된 지 이제 2년이 좀 넘었다. 말단 공무원이지만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생겼다. 물론 고될 때가 많다.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욕설과 폭행이다. 대부분의 소방관이 이런 폭언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폭행 피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뉴스-in

선거법 재판 “좌고우면 하지말라”

오 지사, 공백 우려 입장 피력 일부 학교 집중 방역기간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예정된 선거법 관련 재판에 대해 제주 공무원사회에 ‘좌고우면(左顧右盼)’하지 말아 달라며 도정 공백 우려에 대해 관련 입장을 피력해 주며, ○...최근 일부 학교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등교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 실천을 강조하며 집중 방역 기간을 운영. 2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19일 오후 5시 기준 10명 이상의 학생 확진자가 나온 학교는 모두 10곳으로 나타났는데 도교육청은 이날 등교 전 건강 상태 확인 등을 내용으로 각 학교에 다시 한번 공문을 발송.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말 들어 몇몇 학교에서 확진자가 잇따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환기와 일상 속 강화, 증상 확인 후 조치를 안내하는 것과 함께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에 대해선 1주일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언급. 이태윤기자 전선희기자

오 지사는 20일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재판과 관련해 “도정 공백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공직자들은 슬렁이지 말고 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 이와 함께 최근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12년 만에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어떤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거론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 이태윤기자 전선희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고합85 사기방조등
피고인 고효선
위 피고인은 사기방조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3. 3. 20.
판사 진재경

차고지/주차장
市の 자기차고지갯기사업
市 지원 90%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자기차고지갯기사업 No.1시공업체
편리한생활건축설비
010-9908-9200
종합집수리/하자보수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골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합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합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합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토지임대
제주시 월성로4길 76-2 (해태동산/공향방면 우측)
대지 4,123㎡(1,247평)
건물 2동 / 2중 근린생활시설
현재 렌터카 차고지
임대료 상담후 결정
744-2002, 010-2113-2112

상속한정승인공고
성명 : 양윤성(1962. 11. 20생)
외유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곡3길 27-7, 203호(노형동)
상기자는 2023년 10월 15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3년 3월 14일 제주지방법원 2022년 1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회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동로5길 18, 에이동 101호(화북동, 유성빌라)
2023년 3월 21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계자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소송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주소 제주 010-7305-7819 제주특별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010-7301-7737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 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비다조망 건축가능)
5) 월평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펜션 180평 (주택 건축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식재 (별장 건축가능)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